

## 여자의 머리는 남자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키므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욱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욱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깡을 것이요 만일 깡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들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개역, 고린도전서 11:2-16]

**작**년 5월 첫주에 부임을 했으니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가지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나름대로 너무 감사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던 한 해였습니다. 제가 이전에 전도사나 강도사들을 보면서 잔소리 한 것이 있습니다. 특히 "기사 하려고 왔어요?" 하고 물었는데 전도사로 와서 왜 기사 노릇만 하고 있는냐는 말인데 그런 예를 많이 보았거든요. 그런 것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일년 동안 차 운전이라고는 2번 했습니다. 교회 일이란 것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전도사로 불러서 1년 동안 성경 가르치는 것 외에 거의 다른 일을 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협력해서 교회 일을 잘 감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초등부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쳐 본 가장 최근의 경험이 30년 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이었는데 이제 전도사라고 하니 초등부 설교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서 몇 번 하다보니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시간만 되면 다른 집사님들에게 맡기지 않고 혼자 다 할까 하는 욕심도 나는데 시간에 너무 쫓기다 보니 무리다 싶고, 중고등부도 들어가 봤는데 제가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고등부 학생들과 오랜 기간 공부를 해 왔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거의 제가 맡았습니다. 주일 오후에 창세기, 계시록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쉬는 것보다 함께 공부하는 것이 제게는 훨씬 은혜스러웠습니다.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걸리고 머리 아프지만 그 이상 재미있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녁 설교까지 맡겨주신 것을 포함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웠는지 모릅니다. 전도사가 매주일 저녁 설교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더군요. "그럴려면 뭇하러 신학교 왔어?" 이런 큰 소리를 칠 수 있도록 해 주신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려야지요. 이것 외에도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은 것이 많습시다만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후 시간에 피곤해서 쉬고 싶을 텐데 와서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전도사를 전도사로 인정을 해 주는 귀한 분들이기에... 아울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잔일들을 열심히 맡아 해 주시는 집사님들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1년을 보내면서 감사할 일만 많았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1년을 맞으면서 무슨 설교를 할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결론은 1년 전에 했던 그 설교를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사로 부임해서 최초로 행한 설교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부부간의 근본 문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기만 하면 거의 모든 것이 자동으로 해결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성경의 원리를 떠나 살기 때문에 온갖 문제가 다 생기고 해결책 없이 가정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너지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성경말씀에 예방약, 치료약이 다 들어 있습니다. 흔들리는 가정들을 볼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지요.

저희 형제가 5남 1녀인데 그 중 걱정스런 형제가 절반입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살면 그런 문제가 쉽게

해결될 텐데 하는 생각 때문에 같은 설교지만 또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1년 전의 설교(말씀대로 삼시다)를 그대로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방향을 바꿔가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교 제목을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붙였는데 요즘처럼 남녀 관계가 미묘한 때에 조심스럽습니다. 잘 못했다가는 뭇보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다 싶은데 이런 말을 남겨 놓은 분이 있으니까 책임은 그 분에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행하던 [간 큰 남자 시리즈]를 기억하십니까? 어떤 남자가 간 큰 남자지요?

늦게 들어와서 밥 달라고 하는 남자.

그 정도를 간 큰 남자라고 했으니 옛날 어른들이 들으면 말세다 말세야 할 겁니다. 나갔다가 식사시간 지나서 들어와서 밥 달라는 남자를 간 큰 남자라고 하였지요. 심지어 이사 가는 날 부인이 이삿짐 나르고 열심히 일 시키고 있는데 남편은 어디 가 있어요?

조수석.

왜요?

빼 놓고 갈까 봐서...

혹시 버려두고 갈까 봐서 일찍 조수석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사도 바울은 옛날이니까 그랬겠지요. 간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한 번 봅시다. 3절에 보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8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도 담대하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마 간이 상당히 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여자를 굉장히 천하게 여겨서 여성 운동을 하는 분들이 바울에게 비난을 많이 퍼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는 여자를 무시한 듯한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면서 가장 복음의 덕을 많이 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여자입니다. 그 다음은 아이들입니다. 노예들도 덕을 많이 보았습니다. 인권에 관심있는 분들은 사도 바울이 노예 제도를 인정했다고 비난하지요. 노예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떡하라고 했지요? 그대로 있으면서 주인을 잘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런 구절을 보면 바울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노예 제도가 폐지되어 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일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여자를 무시한 듯한 말을 많이 했는데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여자의 권위가 높아졌고, 노예를 인정하는 교훈을 담은 성경이 전해지는 곳에 노예 제도가 폐지되어 갔다는 사실입니다.

말 한마디만 듣고 하고자 하는 본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사람을 비난하거나 오해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바울은 결코 여자를 깔보았거나 노예는 영원히 노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전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바울에게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씩 답변을 한 편지입니다. 7장부터 결혼문제, 독신, 이혼, 재혼, 우상에게 받쳐진 제물, 은사에 대해서 하나씩 답변합니다.

오늘 본문 11장의 내용은 공중 예배 시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고린도 교회에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마 지중해 지역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머리에 작은 수건을 쓰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중동지역의 여자들을 보면 온 몸을 다 가리고 얼굴도 거의 가리고 눈만 내 놓고 다니는데 그 정도는 안되어도 지중해 주변, 헬라 지역의 여자들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지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여자들의 몸매를 나타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시대라서 가급적이면 많이 벗고, 짧게 입고, 몸에 달라붙게 입고 그래서 몸매를 드러내려고 온갖 궁리를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가급적이면 다 가렸습니다. 다 가리고 남은 부분이 머리였지요. 그러니까 여자다움이 드러나는 유일한 부분이 머리인데 이것마저 좋지 않게 생각한 거지요. 그래서 최대한 가릴려고 애를 썼습

니다. 그것은 동, 서양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여자들이 외출하려면 장옷을 덮어쓰고 눈만 내놓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가린 주된 원인이 성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들은 용감하게 이거 안 쓰겠다는 거예요. 주로 외모에 자신이 있는 부유한 상류층에서 “내가 꼭 이래야 하느냐?”고 반발을 한 것입니다. 머리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싶은 귀부인들이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 차별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당시의 신세대들이 얼굴 가릴 필요가 없다고 벗고 예배에 들어왔던 모양입니다. 지금 보면 별일이 아니겠지만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게 큰 충격이요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미니스커트가 처음 들어 왔을 때 전국이 시끄러웠습니다. 경찰이 자를 들고 다녔어요. 왜요? 무릎 위 몇 센티까지는 안된다고 규정하는 바람에 경찰이 자를 들고 다니다가 치마 짧은 처녀만 보이면 길이를 잰데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는 이야기지만 그 당시는 심각했던 모양입니다. 파마를 처음 하기 시작했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모님은 저질러 놓고 보자 해서 파마하고 들어 왔다가 목사님께 쫓겨 나기도 하고... 난리가 났었죠. 지금 생각해 보면 자연스러울지 모르지만 그 때는 대단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머리에 쓰지 않고 여자들이 교회에 들어온 것은 그만큼 충격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니까 실감이 안 나지만 우리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텔레비전에 어깨 다 드러내고 야하게 나오는 모습으로 웬 처녀가 예배하러 왔다고 칩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텔레비전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있을 겁니까?

나뉘야 뉘니다.

나/뉘야/뉘야 된다고 이야기 한 분은 엉큼한 데가 좀 있지요? 예배만 아니라면 저도 그냥 두고 싶긴 한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한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너무 야한 차림으로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이었던 말입니다. 벗은 사람도 아마 할 말이 있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보다 더 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11장에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대답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우선 칭찬부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 야단을 칠 때 치더라도 우선 칭찬부터 시작합니다. 참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좀더 칭찬하기에 익숙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낮이 간지러워서 칭찬을 잘 못하잖아요. 이쁜 사람을 보면 속으로만 생각하고 말은 잘 안 나와요. 특별히 열심히 칭찬을 해야 합니다. 정 칭찬할 게 없으면 거짓말을 하더라도 칭찬하는데 익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하여 준 대로 잘 지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 은근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잘 따라주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라는 말이 나오죠? 여자들이 취해야 할 행동인데 남자들이 머리에 뭘가 쓰고 예배에 왔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것이 얼마나 보기에 이상하겠는가 하는 이야기지요.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 나오면서 브리지도 좀 넣고, 이쁜 것 하나 꽂아 가지고 여기에 나왔다면... 역으로 생각을 해 보라는 겁니다. 남자가 쓰고 나온 게 이상하면 거꾸로 여자가 안 쓰고 나오는 것은 그만큼 보기가 싫은 것 아니냐는 거죠. 간접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신대원에서 만난 신세대 전도사에게 염색했느냐고 물었더니 무식하게 염색이라고 안 하고 ‘브리지’라고 한답니다. 전체를 안 하고 한 줄씩 염색 한 거 말이지요. 그것을 보고 요즘 신세대 전도사 나왔구나 했는데 어느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을 하더니 까맣게 해 가지고 다녀요. 그 브리지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하고 싶어 죽겠는데 차마 못하겠어요” 하더라구요.

지금도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고 남자가 남자답지 못한 모습 볼 때 답답하지요? 그러면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단호하게 책망을 합니다. 어느 구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지 보세요. 6절에 ‘쓰지 않으려거든 차라리 깎아 버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깎아 버리라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죠. 깎아 버리면요? 보기 싫은 것을 훨씬 넘어서서 있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머리를 짧게 깎고 다녔던 그 당시 사람들은 질이 좋지 못하거나 창녀였다고 합니다. 6절은 단호하게 책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창조의 원리를 들어가면서 차근차근 설명해 나갑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실 때에 주권적인 사역을 남자에게 위임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통치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하신 거지요. 지금도 그러냐구요? 그렇게 대답하기가 조금은 곤란하지요. 처음에는 그랬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그랬는데 범죄한 이후에는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불행이 야기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 감당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표현한 말에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 특별히 여자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창세기는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돕는 배필이 조수라는 뜻입니까? 돕는 배필에 대해서 말은 안 하지만 남자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당신은 나를 돕는 사람이야. 어느 정도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돕는 배필이란 용어에 대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조수가 필요하면 여자를 만들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힘있고 능력있는 짐승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그 중에 똑똑한 놈 불러다가 시키면 되잖아요. 굳이 여자를 만들어서 그를 가리켜서 돕는 배필이라고 말하는 의도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구약을 잘 살펴보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도우시는 분'이라고 번역되어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그 도우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할 때 그 '도우시는 분'하고 '돕는 배필'은 같은 단어입니다. 돕는 배필이란 말이 구약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많이 사용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인이고 하나님은 조수라는 말입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의 의미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조수의 의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시편 54편 4절, 시편 58편 7절, 신명기 33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전부 돕는 배필과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가리켜서 돕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표현을 남녀 관계에 대입을 시키면 어찌하면 여자는 남자에게 하나님과 같은 위력을 지녔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돕는 배필로서 그 정도 위력을 가졌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 남자가 죽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조종합니까? 여자가 남자를 조종합니까? 남자가 여자를 조종할 때는 주로 속임수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럴 때가 많아요. 여자가 남자를 조종할 때는 여자가 여자의 위치에 제대로 서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는 남자를 위대하게 만드는 조종이 가능해 집니다. 바보 온달을 잘 조종한 평강공주와 비슷한 이야기는 참 많아요. 단순하게 조수처럼 뒷치닥거리나 하는 것이 돕는 배필이 아니라 완전하지 못한 남자를 완전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부인을 잘 격려해서 위대한 인물로 만든 예가 설마 없어야 하겠습니까마는 여자의 능력만큼 크지는 않아요.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남자는 머리다. 그러면 여자는 뭘죠?

머리카락.

머리카락요? 전 이런 대답을 상상도 못했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그렇게 보잘 것 없는 존재로 만드시지는 않았습시다. 그 목사님 말씀은 남자는 머리고 여자는 목이라는 것입니다. 목의 기능이 많습시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머리를 지탱하는 일과 머리를 움직여 주는 기능입니다. 머리가 스스로 돌아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목이 돌려요. 남자가 머리면 여자는 목이다? 그것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머리가 돌아가고 움직이는 것은 목이 합니다. 목은 머리를 받쳐주기도 합니다. 높고 낮은 의미가 아니라 목이 없이 머리가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으며 목이 도와주지 않으면 머리 혼자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결코 혼자서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말할 때에 성경의 머리는 '위에서 군림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머리가 몸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말하면서 그 머리가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습시다. 몸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 머리입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생각하시는 남편이라면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각오로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바울을 가리켜 여자를

얽잡아 본 간 큰 남자라고 비난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처음부터 그런 의미에서 여자들이 머리에 쓴 것은 아니었지만 쓰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전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의 풍속에다 성경적인 의미까지 보태서 그것을 지키라는 것이죠. 옛날 고린도 교회의 풍속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와는 엄밀한 의미에서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예배드릴 때 머리에 꼭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너무 문자적인 것에 매여서 그런 것이지요. 이 말씀의 의도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배에 참석하실 때 가능한 단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참석하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특별히 이 구절을 보면서 감동이 되는 것은 머리에 쓰는 것이 좋을까요 안 쓰는 게 좋을까요라는 물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해답을 찾아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성경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을 듯한 질문에 성경을 근거로 설명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것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는 과정에서 주목하고 싶은 다른 한 가지는 남자와 여자는 좀 다르게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다르죠? 요즘 현실을 보면 남자와 여자가 어디가 다르냐는 문제 때문에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데 대하여 여성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여자가 남자와 다르지 않다고 해서 싸움을 걸고 최근 들어서는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게 싸워서 남자와 여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요즘 남녀관계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남녀관계 때문에 재미없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성희롱 한번 잘못하면 벌금을 5,000만원 내야 한다, 이런 이런 것은 성희롱이다, 이런 내용들이 관보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그럴 때입니다. 같이 근무하던 여 선생님께 “나 요즘 돈이 좀 없는데...” 하면 여 선생님이 말끼를 잘 알아들어요. “돈 좀 벌게 해 줄까?” 하면서 “자, 5,000만원이다.” 하면서 손을 내밀어요. 한번 만졌는데도 신고 안 하면 5,000만원 번 것 아니냐는 말이죠. 사이가 좋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쳐다만 봐도 본인이 수치감을 느꼈다면 성희롱방지법에 걸린대요. 남 선생님은 여학생들을 함부로 대해서도 안되고 함부로 쳐다봐도 안되고 이쁘다는 말도 잘못하면 안됩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 대 학생이 아니고 남자 대 여자가 되어버렸으니 어떻게 선생 노릇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무서워서 어떻게 한탄 말입니까? 이것이 여자와 남자가 열심히 싸워온 대가인데 부작용이 많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남자도 행복하지 못하고 여자도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인정하는 차이를 우리도 인정해야 합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남자를 대표로 세웠고 여자를 돕는 배필로 세웠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같은 말이라고 이해합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못나서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이루기 위한 소중한 교훈입니다.

어쨌든 아내되는 분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 가야 합니다. 우리 남편 디디해서/어리숙하다/ 안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 봐야지 하고 앞장 서서 밀고 나가지 마십시오. 효과는 있을 듯 싶지만 조금 길게 보면 분명히 두 분 다 불행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요? 모든 기계도 사용설명서에 따라 사용해야 수명이 깁니다. 그렇게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있는 것을 그렇게 사용하면 무리가 따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했는데 이것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몸을 버리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남편이 할 일이 더 어려워요. 부부가 싸우는 이유 중에 가장 흔한 게 뭐죠?

양말 벗을 때 뒤집지 말아요.

그것은 좀 큰(?) 문제지요! 집에서 싸우는 이유는 대체로 작은 일로 싸웁니다. 그럴 때 두 분이 따로 생각하세요. 아내 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남편을 머리로 세우셨고 순종하라고 했는데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께서 목숨 버려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럼 목숨까지 버려야 되는데 양말 한 짝 가지고 싸울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먼저 떠올라야 합니다. 그러면서 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싸움도 그렇게 크게 가지 않습니다.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생각을

늘 갖고 계십시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남편치고 아내를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누가 그렇게 따질 수도 있습니다. 다 사랑하지요.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는데요? 사랑 받는 사람이 사랑 받는구나 하고 느낄 만큼 사랑하셔야 합니다.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런 말 많이 하시죠? 받는 사람은 받은 것 같지 않은데 주는 사람은 주었다는 거예요. 내 기준과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사람이 확실하게 받았다고 느끼게 사랑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사랑했는데,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 부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방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순서가 다르다는 것은 역할이 다르다는 뜻이고 역할이 다르다는 것은 결국 성품,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고 사고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것은 싸울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뜻입니다. 부부가 실컷 싸우고 난 뒤에 “뉘 남자가 그런 일로 그렇게 성질을 내고 그러냐?”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남자가 대단한 걸로 생각하신 모양인데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이런 걸 누가 노래 제목으로 만들었지요? [슈퍼맨의 비애]. 남들이 다 자기를 보고 슈퍼맨으로 생각하는데 본인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남자는 으레껏 용감하다? 실제로 안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기를 요구하면 이건 스트레스입니다. 남자가 머 쩌쩌하게... 본인은 원래 그렇게 쩌쩌한데 여태까지 안 그런 척 살아왔단 말입니다. 이게 소위 슈퍼맨의 비애입니다. 남자를 너무 슈퍼맨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만은 안 그렇다? 꿈 깨세요. 두드리면 깨질 수 있는 그릇임을 잊지 마세요. 어떤 방식으로든 격려하고 용기를 갖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씩씩한 사나이 라고 너무 안심하지 마세요. 순종함으로 남편을 남편답게 세우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남자들이 부인에게 가끔 하는 얘기가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봐라” 하지요.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중,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시켜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이 두드러지게 차이나는 과목이 몇 과목 있습니다. 영어, 국어는 여자가 월등히 잘 하고, 수학, 과학은 남자가 잘 합니다. 수학, 과학을 어려워한다는 것은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싫다는 뜻입니다. 영어, 국어 잘 하는 여자들을 상대로 입으로 싸워 이길 남자는 그리 많지 않아요. 이런 차이를 미리 인정하세요.

하나의 예에 불과 합니다마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십시오. “여자가 손이 커서 있는 대로 다 퍼주고...” 잔소리해서 고쳐 보셨어요? 잘 안 고쳐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구요? 내버려두십시오. 살림을 다 견어 먹더라도 부부 사이가 원만한 게 더 좋습니다. 견어 먹다 없으면 못 견어 먹겠지요. 괜히 잔소리 해봤자 사이는 사이 대로 나빠지고 살림은 여차피 다 거덜날 텐데 부부 사이라도 제대로 남아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면 차라리 해결책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선배는 여자인데 참 당당하고 멋져요. 그런데 선배들끼리 어울려 다니는 것을 옆에서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앉아 있는 자세가 좀 비스듬 했나봐요. 그러니까 남자가 “좀 단정하게 앉아라. 속옷 다 보인다” 하니까 이 친구가 뭐라 하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여자여야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어떻게 보면 괜찮은 말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저래 가지고는 좀 곤란하겠더라는 느낌이 들어요. 결과는 간단합니다. 남자들이 이 여자 선배하고 친구로는 지내지만 연인이 되지는 않는 겁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 보신 분 있지요?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습니다. 이거 잘 될까요? 얼마나 차이가 많겠습니까? 이런 책도 한번쯤 읽어보세요. 여성과 개의 천국이라는 미국에서 1월에 책이 한 권 나왔는데 책 제목이 ‘행복한 아내’라고 합니다. 이 책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책 이름은 ‘아내여 남편에게 행복하라’입니다(그린북, 7800원). 여권운동과 이혼의 천국이라는 미국에서 이런 책이 나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간단하게 내용 소개한 것을 보았습니다. 카드빚을 지고 연체료를 내는 남편을 보고 욕을 했더니 결과적으로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작전을 바꾸어 “TV 좀 그만 보고 집안 일 좀 도와 달라”고 입이 달짝거리는 것을 참고 “당신이 그렇다”고 했더니 사람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저자가 이런 원리를 성경을 보고 알았는지 오랜 세월 아픔을 겪은 지혜 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런 현상이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른 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생각대로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그렇게 쉽게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저절로 고쳐지기도 하지요.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까? 남자가 여자에게서 났습니까?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30점짜리 답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그것도 30점밖에 안 되겠는데요.

둘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70점은 되겠지만 만점은 아닙니다.

아, 여자는 남자에게서, 남자는 여자에게서, 둘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역시 열심히 성경공부하시는 분이 다르네요. 잘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역할이나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나 사고방식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점을 기억함과 동시에 여자에게서 났다는 점을 기억하고, 여자는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점과 동시에 남자에게서 났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차이와 동등함을 인식하면서 말씀대로 살며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이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할 수 있고 어른들을 바르게 섬길 수 있으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5월은 어린이날, 아버지날, 스승의 날이 있어서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부부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다른 날들이 아무리 있어도 헛일입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바로 아내며 남편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부부 관계란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를 허무는 것은 곧 교회를 허무는 것이란 뜻이 됩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결코 가볍게, 함부로 대할 사이가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